

데스크 시각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바라며



최재호 사회체육부장

“시집갈 날 등창 난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이 주관하는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인 제28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회 성공 개최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번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호남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대구 대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다.

우리는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개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와 모든 시스템을 대회 경기에 맞춰 실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

르스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되나 싶었지만 전북 순창에서 70대 여성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가 남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담양과 광주 등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고 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도 노심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행사 개최를 우려하는 글이 수천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부에선 행사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행사가 차려지더라도 흥행이 일지 않아 유명무실한 대회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들도 만만찮다. 북한응원단 참가 등 몇 안 되는 흥행케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메르스까지 확산되면서 조직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도시 발돋움 계기로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 광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번 주를 고비로 메르스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은 대회를 치르는 데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

위도 사스나 신종플루 등 국내외적인 큰 파문이 일었던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나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회 등이 성공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메르스 파장이 대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3일~14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북 일원에서 12일간의 열전을 치르게 된다. 지난 19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유니버시아드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3000여 명의 대학 스포츠선수들이 참가하는 ‘젊음의 축제’다.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총 21개 종목에서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내년 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향한 미래의 스타들이 각축을 펼친다. 한국은 21개 전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525명(선수 387명, 경기 임원 98명, 본부 임원 40명)을 파견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17세~28세 사이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전년도 졸업생까지 유효하다.

광주시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전에 나서 실패한 뒤 이듬해인 2009년 FISU 총회에서 캐나다 에드몬턴과 대만 타이베이를 따돌리고 개최권을 획득했다. 어렵

게 대회를 유치한 만큼 광주는 이번 대회를 평화 속에 문화가 넘쳐흐르며, 친환경 첨단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EPIC대회로 준비하고 있다.

메르스 차단 주력해야

친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를 조화한 EPIC은 이번 대회의 4대 컨셉이며 유니버시아드를 위한 광주만의 특별한 메시지가기도 하다. 지구촌에서 온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호남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면서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D-23. 메르스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과민한 반응 역시 자제해야 한다. 인신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해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현미경의 눈으로 대회 운영의 A부터 Z까지 점검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물론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lion@kwangju.co.kr

기고



임내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

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뜻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와 함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서독 정부의 지속적인 통일정책과 동독에 대한 지원 역시 통일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염원과 서독의 리더십이 합작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 간 전쟁 경험 없이 등 처한 상황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얻을 교훈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교류협력 이 필요하다.

일부 보수세력 중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향적인 남북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끌어내

어 자연스럽게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교류협력 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5·24조치 이후 몇 년째 교류 단절의 상태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방문 때 만났던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이 폐쇄적이기는 하나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국회에서 북한을 수백 번 방문한 농업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분 얘기 역시 북한 사회에도 부분적이나마 개혁 개방적 조치로 인해 일정부분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있고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꽤 잘 알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큰 역할을 한 결과이지만, 2008년 이후에는 이러한 지원들이 끊어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교류는커녕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남

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집행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2013년 7237억원의 예산 중 1.8%인 153억원 만 집행됐고, 2014년 에도 6801억원의 예산 중 2.2%인 147억원 만이 집행되었을 정도로 지원 실적이 초라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팀이 수행한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계적 추진전략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기본은 활발한 교류·협력이다. 이를 통해 공통분모가 커지고 신뢰가 쌓이려면 5·24 조치 해제 또는 완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경대 운위탁 교수는 북한과 함께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는 등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장백산 공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관계 전문가들조차도 현재 남북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하루바삐 전향적 남북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활발한 교류협력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입기가 채 3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다.

은편칼럼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정책위원장

‘로컬푸드’로 만들어 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하지만 로컬푸드는 아침에 생산한 신선한 채소를 바로 그날 점심과 저녁 식탁에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경제를 순환하게 해 준다. 또한, 서로 얼굴과 존재를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정이 흐르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농산물은 어디에서 생산한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로컬푸드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을 위해 최근 지역 사회 많은 노력이 있었다. 광주 남구 대촌에서는 남구주민회의와 두리공동체가 나서서 효천2지구 효천초 옆 근린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터가, 저녁 7시부터는 청계거리 음악회가 열린다. 광산구청에서는 1층 로비에 전국 최초 무인판매 로컬푸드장터를 개장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고, 학교급식도 로컬

푸드도 공급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밀사랑운동 역시 광산 지역 우리밀로 밀소비를 촉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다. 광주시정에서도 1층 로비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 도쿄 네리마구에 있는 ‘시라이시’ 농장에서는 야채를 파는 것 보다 야채를 재배하는 노하우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전략으로 농사체험교육농장이 활발하다. 농장에 있는 직거래 매장과 레스토랑도 인기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키친팜 요코하마’는 본인이 가꾼 채소로 바로 맛 있는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리는 ‘작은 키친, 부엌’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도쿄 미누마 복지농원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 농장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민들과 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 완주 인덕마을에서는 감나무가 서로 붙은 연리지를 활용해 사랑이 많은 부부 이야기를 제시해 주고 있고, 학교급식도 로컬

박사업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을 광주시와 전남의 상생발전 사업으로 발전시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남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고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안테나숍 같은 ‘녹색농촌체험홍보관’을 광주시 내에 만드는 사업을 광주시와 전남도, 농어촌공사가 손을 잡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음력 7월 7일은 권유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다. 양력 7월 7일은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도농교류의 날’이다.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것은 권유 직녀의 사랑처럼 애듯하다. 농사 체험, 교육프로그램과 직거래, 문화상품이 접목된 우리 지역 로컬푸드 운동으로 가슴 설레는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을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뒤늦게 자가 격리 통보한 허술한 방역체계

메르스 방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인 대학생 B씨(여)는 지난 7일 재학 중인 전남 A대학에서 과제물 준비차 광주 터미널에 도착한 뒤 동구보건소 직원에 의해 서울 강서보건소 심도시이면서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D-23. 메르스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과민한 반응 역시 자제해야 한다. 인신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해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현미경의 눈으로 대회 운영의 A부터 Z까지 점검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물론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lion@kwangju.co.kr

소 등에 이송 협조 요청을 했더니 허술한 방역체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순창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와 접촉, 지난 5일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의사 C씨의 경우도 보건당국이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뒤늦게 포함하는 바람에 6일 해외 출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환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현재 메르스 확산은 병원 내 감염에 국한돼 있지만 격리 대상자가 다중 이용시설인 대학과 터미널, 공항 등지를 확보한다면 지역 사회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피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는 광주·전남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르스 차단을 위한 보건당국의 정보 파악과 지자체와의 공동 대처는 이제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민 개개인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당국의 지도와 조치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청년 없는’ 전남,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지난 2000년 이후 전남지역의 15세 이상 29세 청년층 인구가 무려 14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기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도 40% 이상 줄었다. 지역의 미래가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다고 볼 때 청년인구의 유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8일 전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2000년 213만 명에서 2014년 191만 명으로 10.3% 감소했다. 문제는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다는 데 있다.

특히 15~29세 계층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점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0년 15~29세 인구는 40만 8000명에서 2014년 26만5000명, 30~39세 인구는 29만6000명에서 19만 8000명으로 각각 줄었다. 15~29세와 30~39세 취업자 수 역시 15만2000명

에서 8만9000명, 21만7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41.4%, 32.3%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많은 청년인구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은 학업과 취업난 때문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고용 상황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남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전국 평균 44.8%보다 7.5%, 고용률은 33.6%로 전국 40.7%보다 7.1%나 낮은 수준이다.

민선 6기 전남도정의 슬로건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의 메카인 지역 대학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끌어 올려야 한다. 지역의 청년들이 ‘کمplex’ 할 수 있는 대책과 지혜가 시급한 시점이다.

無等鼓

태국 칸차나부리주 파트룩이란 마을의 여섯 살 난 소년 갑탄은 2003년 12월 삼촌을 도와 양계장의 죽은 닭을 처리하고 고열로 앓아 누웠다.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열이 40.5도까지 치솟았고, 호흡 곤란 증세마저 보였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의사는 갑탄이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갑탄은 1개월만에 숨을 거뒀고, H5N1으로 사망한 최초의 환자로 기록됐다. H5N1은 나중에 ‘조류독감’이란

말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래 조류독감은 조류에서만 감염을 일으켰고, 인체에 전파돼도 가벼운 증상만 남았다. 이른바 ‘종(種)간 장벽’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2009년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도 돼지를 매개로 시작됐다. 돼지의 호흡기 상피세포에는 사람과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라에서 신종플루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 중동지역 박쥐가 낙타에게 바이러스

를 옮기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도 동물에서 시작돼 인간에게 전염된 바이러스다.

동물에게서 옮겨 온 바이러스는 치명적이다. 유행성 출혈열의 치사율은 60%에 이르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50~70%에 달한다. 요즘 국내를 떠들썩하게 하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수의학자인 마크 제롬 윌터스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원인을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류의 지구환경 파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인류의 지구환경 파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인류의 지구환경 파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 및 자연의 순환과정 파괴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주범이라며 전염병을 뜻하는 ‘epidemic’을 변형해 환경전염병이란 의미의 ‘에코데믹(eco-demic)’으로 명명했다.

메르스 발병 세계 2위라는 치욕적인 기록 때문에 ‘코르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변종을 통해 갈수록 독해지는 환경전염병 시대, 신종 바이러스 출현이 어 막을 수 없다지만 보건당국이 조기 감시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인재(人災)가 분명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에코데믹 시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1919)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자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